

## 주님 수난 성지주일(2018년 3월 2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손에 성지가지를 들고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기억합니다. 하나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하는 군중들의 환호성과 함께, 동시에 같은 똑같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는 저주의 외침도 듣게 됩니다.

오늘 전례의 이 두 가지 복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과 수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두가지 단면, 즉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두가지 극단적인 단면을 목격합니다. 적나라한 인간의 내면을 목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시의 예수님은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이야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등,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등, 예수님을 두 손들고 열렬히 환영 합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서 영웅을 반기듯 옷을 땅에 깔아서 밟고 가라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호 하듯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환성을 지르면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쳐대지요. ‘호산나’는 히브리말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불과 하루 사이에 급작스럽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영웅 대접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저주하고 성질을 내고 고함을 쳐댁니다.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죄인 취급합니다. 인간 마음 속의 변덕과 배신, 미움과 질투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아니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영웅이 내일은 원수가 됩니다. 어제는 동료였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일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한 가족이 서로 갈라섭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모두가 적이고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백번 잘해줘도 단 한번의 실수를 기억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변덕이 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운함보다 함께 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텐데 그러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존심, 편견, 고집, 고정관념 등이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이런거 아세요? 늘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려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툼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용서와 배려를 알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빚진 것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카톡이나 안부를 먼저 보내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늘 사랑과 관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사는데 참 인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인간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아에서 죽어가는 소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귀중한 생명이 하찮게 취급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서 살아가는 이웃, 가족, 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다면, 슬퍼서 우실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못박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와 실망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배반과 복수의 원한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삶과 행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시작으로 말입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로 새롭게 바뀌어 졌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이 되었고, 저주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난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절망과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소식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곧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죄많은 세상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 참된 행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행복의 길입니다. 참 사랑의 길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의 행복을 바라셨던 예수님의 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